



# 맑은 물소리로 마음 말끔히 씻고...



용문사 이매패마을인 용소마을(위)과 용문사 부도밭.

용문사는 아름드리 소나무들과 측백나무들이 감싸고 있어서 더 고요하게 느껴지는 절집이다. 고요한 절집에 바닷바람이 요란하게 분다. 속세의 때를 묻히고 온 내가 스며들었기 때문일까. 나뭇가지가 바람에 울어댄다. 새벽을 깨우는 스님의 목탁소리를 듣고 어스름한 절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보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하늘은 별천지다. 주지 성전 스님의 책 <행복한 미소> 중 '산사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글귀가 생각났다.

"그 집 속에 들면 나는 이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 별나라 사람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곳에는 번뇌도 없고, 다툼도 없고, 성냄도 없이 오직 고요와 평화, 사랑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 한 번 바라보고 별처럼 자리한 산사의 불빛 한 번 바라보며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걸으며 다 못 본 별은 산사의 빛마루에 앉아 헤아려볼 생각입니다."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불국정토를 꿈꾸는 용문사는 우리나라 3대 지장도량 가운데 하나다. 802년 신라 애장왕 때 창건되어 임진왜란에는 스님들이 승병으로 참여하여 왜군과 맞서 싸우기도 했다. 전란으로 가람이 불에 타 없어졌지만 1661년 현종 2년에 학진 스님이 인근 보광사 건물을 옮겨와 중창하였다고 전해진다. 보광사는 원효 대사가 세운 사찰이었으나 이곳으로 옮길 때에는 폐사 지전의 상태였다고 한다.

용문사라는 이름은 절집 이매패마을에 용이 승천했다는 용연이 있었는데, 그 위에 터를 잡았다고 하여 얻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호국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속중 때 나라를 지키는 절이라는 칭호를 얻어 수국사로 불리기도 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절집이라 남해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용문사 석불은 높이 약 81cm로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되었고, 춘은집책판은 조선 인조 때 학자인 유희경의 시집 <춘은>을 간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72호로 지정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후 절을 중창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밖에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사용하던 대포 삼혈포와 속중으로부터 하사받은 연옥등, 촛대, 번, 수국사 금배 등이 있었으나 연옥등과 촛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훔쳐갔다고 한다.

용문사는 민초들과 함께 살고자 했던 사찰이었던 듯하다. 사천왕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발 밑에서 신음을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 양반과 관리이다.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민초들의 마음을 읽어 주는 사찰이라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37 호구산 용문사**

**호랑이가 누운 산 지형에 자리잡은 터  
남해에서 가장 많은 유물 가지고 있어**

서 일까. 절집이 웅성할 때 사용하던 구시뿥이 봉나무배만 하다. 사하촌 용소리에 들려 강유순 할머니를 만났다. "옛날에는 살기 어려웠니까 마음으로 믿었지요. 부처님 전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기면 다니고 그랬지요. 촌사람들 손이 가버워서 절집이 어떻게 살림을 하든지 참 걱정이었습니다. 그 래도 성전 스님이 잘 이끌어 가십니다." 논농사 밭농사를 지어 자식을 공부시킨 것은 다 부처님 덕이라며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박순여씨가 인생 비탈길을 오르던 때 부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택시절 남편은 배타고 바다로 나가고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어려웠니까 절집을 많이 의지했지요. 큰 시숙님이 장님이라 말이 노릇을 대신하며 남편도 없이 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요. 지금도 절집이

캣마을에 산 인연이 나를 지킬 수 있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돕는 부처님이 곳곳에 있었지요. 돈이 없어서 아들 학비를 못 대주고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희망을 준 스님을 만났습니다. 중년 스님이 큰아들 학비를 2년 동안 도와주었지요. 그 스님은 용소리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지요.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었지요."

용소마을은 187호 420명이 사는 마을이다. 일 년 열두 달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다. 겨울에는 시금치 농사를 짓고, 봄에는 마늘종 농사를 짓고, 여름에는 마늘 추수, 가을에는 벼를 추수한다. 일거리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는단다. 용소리는 인심이 넉넉하였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마을사람들을 불러 아침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지금도 있다. 강영욱 이장님은 마을에 인정이 넘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동네 인심이 후한 것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용문사라는 넉넉한 절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문사는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많이 배려했지요. 가을철이 되면 사찰림에서 낙엽을 긁어 빨감을 만들 수 있도록 3일 동안 산문을 개방했지요. 그 시절 그것은 사찰의 큰 보시였습니다."

그는 마을지킴이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고향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 앞 솔밭을 공민화하고 용문사에서 남산까지 등산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철따라



양반과 관리를 밟고 있는 사천왕상(위)과 대중들의 발을 떠 두는 힘지통인 구유(구시뿥).

피는 꽃을 심어 등산객들을 유치하여 마을과 절집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용문사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산신과 뒤로 올라 산지락에 내려다보는 바다이다. 제 몸의 뿌리로 키워내는 바다빛은 늘 다르다. 호구산 자락에 기대어 오순도순 어깨를 맞대고 무진세계에 빠져 있는 기암들도 그림 같은 영강만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덩어리로 살아가는 바다처럼 함께 살아가는 정토세계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용문사 길은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남해=김삼미(수필가·본지 객원기자)

## 佛心 成佛화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만트라 佛 출시!**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 보면 잘못 들어 놓은 발로 끔찍거리게 사람이 한 몫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험하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륜륜상(千輪輪相)과 만트라 佛이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화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특별한인 가격 79,000원

**신행, 개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 만트라 佛은 올마니 반매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 만트라 佛 올마니 반매화 성불화는!
  - 발아치 보강 기능
  - 체중 분산기능
  - 충격 흡수기능
  - 신고 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가볍고 묵직한 착용감

성불화 보금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업계최초! 일우베스트**

## 웰빙 근적외선 히터 후불제 판매!!

**지료할부**

**난방비용 90%절감, 한달전기로 35,046원 - 하루 10시간기준 후끈 후끈 초강력 난방!**

**6無**

- 무부식
- 무독
- 무취
- 무연
- 무소음
- 난방사각대

**【스탠드형】**

- 용량(W): 220V/60Hz 1,800W
- 전력(Wh): 하루 90도 30분
- 생리 온도 조절 가능
- 타이머 기능: 약 7시간 30분
- 불꽃 온도: 200도
- 온도 조절: 10도씩 조절 가능
- 타이머 기능: 약 3시간
- 난방 온도: 10도 ~ 18도
- 제품가격: 178,000원
- 지원할부가: 50,000원 x 5회

**【벽걸이형】**

- 용량(W): 220V/60Hz 1,800W
- 전력(Wh): 하루 90도 30분
- 생리 온도 조절 가능
- 타이머 기능: 약 7시간 30분
- 불꽃 온도: 200도
- 온도 조절: 10도씩 조절 가능
- 타이머 기능: 약 3시간
- 난방 온도: 10도 ~ 18도
- 제품가격: 198,000원
- 지원할부가: 48,000원 x 5회

**최고 90% 이상 난방비 절감**

구분	필사용량	단위가격	월난방비	비교대상
통유	480kg	약 1,150원	약 552,000원	100%
가스	220kg	약 654원	약 143,830원	75%
국외외선히터	540Wh	약 64.9원	약 35,046원	약 10% 이하

**【직석형】**

- 용량(W): 220V/60Hz 1,000W
- 전력(Wh): 하루 90도 30분
- 생리 온도 조절 가능
- 타이머 기능: 약 3시간
- 난방 온도: 10도 ~ 18도
- 제품가격: 178,000원
- 지원할부가: 50,000원 x 4회

**지료할부**

**이런곳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 사찰 · 지하시설장 · 매점센터 · 관공서 · 자동차정비소 · 학원 · 병 · 의원 · 체육관  
 ■ 골프연습장 · 가정 · 호텔방 · 신협 · 우체국 · 사무실 · 지하상가 · 피부관리실  
 ■ 노래방 · 음식점 · 포장마차 · 이 · 미용실 · PC방 · 옷가게 · 연구소 · 실험실 · 교회 · 공장 · 오락실

제조인 일우베스트 ILWOO BEST Co., Ltd.  
 주문 상담 080-307-3070  
 대표 935-12-355423 (정비)

##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옷! 「천하무적」

# 옷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 것은 알지만 옷값이 비싸서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슬슬 자주 드시는 분이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든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장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슬...

**인연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옷 인턴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옷을 몸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산도 정은이의 좋은아침 - 옷 잘 갖춰는 참옷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 신문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인턴는 참옷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아요 - 참옷만 먹어 되는 옷 건강법 협찬
- ▶ 2006.8 20 KBS 상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협찬
- ▶ 2006.10.31 KBS 무한대구역 - 협찬

**구입법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난 많은 고분자화합물 효과를 올리고 있다.

상담문의: 옷가네 참옷농원  
무선전화: 080-838-3366